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행동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Moral Judgement, Moral Emotions
and Moral Behavior

김진아(Jin Ah Kim)¹⁾

엄정애(Jung Ae Ohm)²⁾

ABSTRACT

In this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judgment, moral emotions and moral behavior, 137 five-year-olds were interviewed to measure moral judgment and moral emotions. Their teachers measured children's moral behavior.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judged moral and conventional rules by using the 4 criterion judgments of seriousness, rule contingency, generalizability and punishment. Children with highly felt moral emotions had higher scores in moral behavior. Moral judgment, moral emotions and moral behavior were highly interrelated. Children's moral behavior was related to rule contingency and generalizability. Their moral behavior was highly related to positive moral emotions. Positive moral emotions were related to the rule contingency and generalizability. Negative moral emotions were highly related to seriousness and punishment.

Key Words : 도덕적 판단력(moral judgement), 도덕적 감정(moral emotions), 도덕적 행동(moral behavior).

I. 서 론

도덕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도덕성 함양에 있다. 도덕 교육의 목적이 도덕성의 함양에 있다면, 도덕성(morality)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난심과 이종태(1997)는 도덕성이란 도

덕 현상을 인식하고 도덕규범을 준수하려는, 즉 자신 및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선·악·정·사를 구별하고, 선행과 정의를 실천하려는 심성과 행동 경향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Hersh(1992)는 도덕성을 인정있는 보살핌, 객관적인 사고, 단호한 행동의 조화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도덕

¹⁾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대학원생

²⁾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ung Ae Ohm,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ohm@ewha.ac.kr

성이 인지, 정의, 행동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내며,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덕성의 세 가지 요소들은 각기 독립적인 연구 분야들의 주제가 되어 왔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도덕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대하여 대체로 인지(도덕적 사고), 정의(도덕적 감정), 행동(도덕적 실천)적 부분으로 구분은 하지만, 자신이 중시하는 특정한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신분석학 이론에서는 죄의식이나 양심, 수치심, 자존감 등과 같은 인간의 도덕적 감정에 초점을 두었고, 사회 학습 이론은 도덕성의 정의적, 인지적 측면들은 이차적인 것으로 보고 행동 그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 인지 발달이론은 도덕성의 본질을 도덕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합리적 판단 능력에서 찾으며,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박병기·추병완, 1996).

위와 같이 도덕성을 인지, 정의, 행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 중 한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 도덕성의 세 가지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며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도덕성의 통합적 특성을 간과하기 쉽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며 등장하게 된 것이 통합적 접근이다. 이 접근에서는 도덕성의 발달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회 사태에 적용되기 때문에 도덕교육에서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Lickona, 2001). 통합적 도덕교육론자로 알려져 있는 Lickona(2001)는 인격은 세 가지 요소, 즉 도덕적 인지,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덕성 발달 교육은 인지적(도덕적 판단), 정의적(도덕적 감정), 행동적(도덕적 태도 및 실천력) 측면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총체적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통합적인 도

덕교육은 도덕성 발달에 관한 보다 많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도덕성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세 요소들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통합적 도덕교육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덕성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지적 차원에서 도덕성 발달을 알아보는 연구가 많다. 도덕적 판단능력을 알아보거나(김시은·정영숙, 2000; 김정규·김은희, 1993), 토론활동 등의 다양한 도덕교육프로그램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김정준, 1993; 오혜자, 1999; Katherine & Brian, 2001). 또한 유아의 기질이나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등의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들이 유아의 도덕개념 형성이나 도덕적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신미양, 2002; 정현희, 1992).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인지발달이론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데, 현재 도덕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지발달론적 입장은 도덕행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덕적 판단력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판단과 행동의 괴리 문제를 발생하게 하였고, 체험중심의 도덕교육을 소홀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Kohlberg가 제시한 도덕성 발달단계(인습 전-인습-인습 후 수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습적 영역과 도덕적 영역은 서로 상이한 독립적인 영역이라고 보는 Turiel(1978, 1983)의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덕적 영역이란 시대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도덕적 인식과 판단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시대, 사회,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화적 보편성을 지닌 영역이다. 인습적 영역은 특정 사

회적 체계에 함께 참여하는 집단내의 개인의 행동을 통합하여 사회적 상호 작용을 조화시켜 주기 위해 그 성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 규정된 행동 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의적이고 상대적, 가변적이며 문화 특수적인 영역이다. 이러한 Turiel의 영역구분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러 문화권의 다양한 연령에서 영역구분이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는 연구(Nucci, 1981; Nucci & Turiel, 1978; Smetana, 1981; Turiel & Weston, 1980)가 많이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도 영역구분과 영역구분의 발달양상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김보들람, 1993; 김상윤, 2000; 박영신, 1999, 2001), 성인-유아의 관계 방식에 따른 영역 구분(최보가 · 송미화, 1996), 도덕과 인습영역에 따른 정서적 반응(유인숙, 1996; 최보가 · 유연옥, 2000)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역구분이론을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영역구분에 따른 도덕적 감정이나 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인습과 도덕의 개념을 이해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나아가 유아의 인습과 도덕에 대한 개념 이해가 도덕적 감정 및 도덕적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정의적 차원에서는 도덕적 위반 행동에 대한 기쁨, 슬픔 등과 같은 기본적인 감정을 알아보는 연구(김성민, 1994; 윤미경, 1992)와 동정이나 공감과 같은 긍정적인 도덕적 정서에 관한 연구(박성희, 1994; 이해주, 1996; Eisenberg & Lennon, 1980; Spinrad, Losoya, Eisenberg, Richard, Fabes, Shepard, Cumberland, Guthrie & Murphy, 1999)들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긍정적 도덕적 감정으로서 공감이나 동정은 모두 상대방의 상태를 지각함으로써 시작되는 대리적인 반응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져 왔으

나 최근 연구자들은 이 두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타인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대리 경험하는 것이 공감이라면 그 타인을 위하여 무엇인가 도우려는 느낌이 바로 동정이다. 공감의 목적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고, 동정의 목적은 상대방의 '복지'이다(Spinrad 등, 1999; Wispé, 1991). 또한 긍정적인 도덕적 감정뿐만 아니라 수치심이나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도덕적인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그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진선, 2000; Lewis, 1971; Tangney, 1992). 과거에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자아를 손상시키고 정신 병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부적응적 정서로 이해되었으나, 최근에는 도덕적 규칙위반과 오류에 직면해서 자기와 관련된 판단을 평가하고 수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수치심과 혼재된 변인을 제거한 죄책감(shame-free guilt)은 동정이나 타인 조망 수용 등 긍정적 변인과 관련된다고 보고되면서 주목받고 있다(Tangney & Fischer, 1995). 그러나 이렇게 아동기 사회 도덕적 규범 형성에 도덕적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최근 강조되고 있으나 이 주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온데 반하여, 도덕성의 정의적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덕적 감정의 역할을 보다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도덕적 감정(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이 도덕성의 다른 두 측면-인지적 측면 및 행동적 측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행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특히 Turiel의 영역구분모형에 근거하여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행동을 측정하였으며, 긍정적인 도덕적 감정과 부정적인 도덕적 감정을 모두 측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도덕성 발달에서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그 종합적인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또한 도덕교육의 방향과 보완점, 교육방법 등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은 각각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행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2-1.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행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2-2. 유아의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행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2-3.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감정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만 5세 유아 137명(남아 89명, 여아 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을 유사하게 하기 위하여 주로 중산층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용인시 1개 유치원과 서울시 2개 유치원을 선정하여 선정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5세 유아들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Nucci와 Turiel(1978), Smetana(1981), Song, Smetana & Kim(1987), Fowler(1994)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최보가와 송미화(1997)가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유아용 면접도구로서, 도덕규칙위반사례와 인습규칙위반사례를 제시하고, 각 사례에 대하여 4가지의 질문을 하여 유아가 대답하도록 되어있다. 위반사례와 질문은 다음과 같다.

<도덕규칙위반사례>

- (1) 다른 아이를 때리는 것
- (2) 다른 아이와 장난감을 나누지 않고 독차지하려는 것
- (3) 넘어진 친구를 도와주지 않는 것

<인습규칙위반사례>

- (1)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다른 활동 영역에 있는 것
- (2) 장난감을 제자리에 정돈하지 않는 것
- (3) 웃어른께 인사하지 않는 것

이상 6가지 위반에 관한 이야기를 위반사례를 묘사한 30×23cm 펜화와 함께 제시한 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질문하였다.

<심각성>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니?

유치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니? 얼마나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여기 있는 찡그린 얼굴 그림을 보고 가리켜 보렴(괜찮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매우 매우 나쁘다)
 <규칙독립성> 만약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규칙(선생님과 함께 지키기로 한 약속)이 없
 다면 이런 행동은 해도 괜찮나?

(예, 아니오)

<보편성> 만약 집에서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
 다면 이런 행동은 괜찮나? (예, 아니오)

<응분의 벌> 이런 행동을 한 친구에게 선생
 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벌을 준다면 얼마나
 주어야 할까?

(주지 않아도 된다, 약간 주어야 한다, 많이 주
 어야 한다)

위반에 관한 심각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①
 지름 7cm 원에 웃는 얼굴(괜찮다) ②지름 10cm
 원에 조금 찡그린 얼굴(나쁘다) ③지름 12cm 원
 에 찡그린 얼굴(매우 나쁘다) ④지름 14cm 원에
 매우 찡그린 얼굴(매우 매우 나쁘다) 그림을 사
 용하였다. 평정점수는 ‘괜찮다’에 0점, ‘나쁘다’
 에 1점, ‘매우 나쁘다’에 2점, ‘매우 매우 나쁘다’
 에 3점을 주었다. 유아의 규칙독립성에 대한 판
 단은 ‘규칙이 없다면 위반해도 괜찮다’는 답에
 대하여 0점, ‘규칙이 없더라도 위반해서는 안된
 다’는 답에 대하여 1점을 주었다. 보편성에 대한
 질문은 ‘유치원이 아닌 집에서는 위반해도 괜찮
 다’에 0점, ‘유치원이 아닌 집에서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에 1점을 주었다. 응분의 벌에 대한 판
 단은 ‘주지 않아도 된다’에 0점, ‘약간 주어야 한
 다’에 1점, ‘많이 주어야 한다’에 2점을 주었다.
 이 도구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심각성
 .73, 규칙독립성 .66, 보편성 .48, 응분의 벌 .63으
 로 나타났다.

2) 유아의 도덕적 감정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감정 중에서 공감과 동
 정(Empathy and Sympathy), 수치심과 죄책감

(Shame and Guilt)을 측정하였다. 유아의 공감과
 동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Spinrad와 그의 동료들
 (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번안하여 사
 용하였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는 Oltof, Schouten, Kuiper, Stegge와 Jennekens-
 Schinkel(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공감과 동정의 검사 도구는 공감능력을 측정
 하기 위한 8가지 사례(같이 놀이할 친구가 없는
 남자(여자)아이를 볼 때/ 다쳐서 아파하는 남자
 (여자)아이를 볼 때/ TV에서 슬픈 장면을 볼 때/
 다친 동물을 보았을 때/ 우울해하는 친구들을 볼
 때/ 울고 있는 아이를 볼 때)와 동정능력을 측정
 하기 위한 6가지 사례(장난감이나 옷이 없는 친
 구들을 볼 때/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아이를
 볼 때/ 내가 가진 것들을 갖지 못한 친구들을 볼
 때/ 마음이 상해있는 아이를 볼 때/ 슬프거나 힘
 들어 보이는 아이를 볼 때/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친구를 볼 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감
 수준을 측정하지 위한 질문(너도 슬퍼지니?/ 너
 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 동정수준을 측정하
 기 위한 질문(너도 가엽게 느껴지니?)에 대하여
 ①지름 7cm 원에 무표정한 얼굴(전혀 그렇지 않
 다) ②지름 8cm 원에 조금 슬픈 얼굴(조금 그렇
 다) ③지름 10cm 원에 매우 슬픈 얼굴(많이 그
 령다)을 선택하게 하였다. 채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조금 그렇다’에 2점, ‘많이 그렇다’
 에 3점을 주었다.

수치심과 죄책감 검사 도구는 5가지 상황(친
 구를 험담하는 상황/ 장난하다가 주스를 엮지른
 상황/ 달리기시합에서 진 친구를 놀리는 상황/
 실수로 친구의 장난감을 밟아서 부서뜨린 상황/
 실수로 자신의 발을 밟은 친구에게 큰소리로 화
 를 내는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상황
 묘사하는 30×23cm 펜화와 함께 제시하였다. 각

도구들은 연구대상의 성과 이야기 주인공의 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남아용과 여아용 2세트로 제작하였다. 유아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측정하기 위해 각 상황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1) ○○는 얼마나 부끄러울까, (2) ○○는 얼마나 잘못했다고 느낄까라고 질문하고 공감과 동정 척도와 같은 방식으로 3가지 얼굴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조금 그렇다'에 2점, '많이 그렇다'에 3점을 주었다.

공감/ 동정 측정 도구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82였고, 수치심과 죄책감 측정 도구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65로 나타났다.

3) 유아의 도덕적 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는 Smetana와 그의 동료들(1993)의 연구에 사용된 도구를 김혜옥(2001)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도덕적 규칙(13개 문항)과 인습적 규칙(13개 문항)의 2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학급의 교사가 평소의 유아 행동에 대한 관찰 결과를 중심으로 각 문항에 대해 행동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도구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도덕적 영역 .93, 인습적 영역 .9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예비연구

본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에 사용될 검사 도구의 적절성과 문제점, 그리고 검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5년 8월 29일에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6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자는 개별 면담실에서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친밀감을 갖도록 참가 대상 유아와 대화를 나눈 후,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도덕적 행동 검사 도구는 참여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배부, 회수되었으며 이를 분석하였다. 검사 도구는 도덕적 영역과 인습적 영역에서의 유아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술 평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임교사와 평가 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비 연구 결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데 한 유아 당 15-20분이 소요되었으며, 유아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은 없었다. 또한 담임교사가 유아들의 행동을 평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2005년 9월 12일부터 ~10월 12일에 실시하였으며,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용한 공간에서 연구자와 개별 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감정 검사는 연구보조사 2명(유아교육전공 대학원생)을 선정하여 연구 목적과 검사 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검사 내용을 숙지하게 한 후 실시하였다. 도덕적 행동 검사도구는 대상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전달하고, 검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또한 유아가 도덕적 판단에서 비허용성,

규칙독립성, 보편성, 응분의 별 준거별로 도덕적 영역과 인습적 영역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행동의 일반적 경향

1)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표 1>에 의하면 만 5세 유아들은 심각성, 규칙독립성, 보편성, 응분의 별의 4가지 준거를 모두 사용하여 도덕적 규칙과 인습적 규칙을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준거판단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규칙 위반을 더 심각하게 여기고 위반 시 많은 벌을 받아야 하며, 규칙이나 맥락과 독립적으로 판단함을 의미한다. 먼저 심각성 준거판단에서 도덕적 규칙영역 점수 평균은 2.30, 인습적 규칙영역의 점수 평균은 2.02로 도덕적 규칙영역의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5.24, p<.001$). 즉, 유아들은 심각성 준거에 따라 도덕적 영역과 인습적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도덕규칙위반을 인습규칙위반보다 더 나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아들은 규칙독립성 준거판단에서도 도덕적 영역과 인습적 영역의 규칙을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4.18, p<.001$). 유아들은 도덕적 영역의 규칙을 인습적 영역의 규칙보다 더 규칙이 없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유아들은 보편성 준거에 의해서 도덕적 영역과 인습

<표 1> 각 준거판단별 평균점수(표준편차)

준 거	도덕적 규칙	인습적 규칙	전체	t
	M(SD)	M(SD)	M(SD)	
심각성	2.30(.60)	2.02(.68)	2.16(.55)	5.24***
규칙독립성	.94(.18)	.83(.30)	.88(.19)	4.18***
보편성	.95(.15)	.70(.24)	.82(.17)	12.17***
응분의 별	1.51(.44)	1.43(.42)	1.47(.36)	2.06*

* $p<.05$ *** $p<.001$

적 영역의 규칙을 구분하였다($t=12.17, p<.001$), 즉 인습적 규칙보다 도덕적 규칙을 유치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다른 준거보다도 보편성 준거에 의해서 도덕적 영역과 인습적 영역을 잘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분의 별 준거의 경우에도 도덕적 영역과 인습적 영역을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06, p<.05$). 따라서 유아들은 인습적 규칙을 위반했을 때보다 도덕적 규칙을 위반했을 때 더 많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함을 알 수 있다

2) 유아의 도덕적 감정

유아의 도덕적 감정점수 결과는 <표 2>와 같다. 유아의 도덕적 감정 점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공감과 동정 수준이 높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아의 도덕적 감정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긍정적 감정의 점수는 3점 만점에 평균 2.28점, 부정적 감정의 점수는 3점 만점에 평균 2.56점을 받았다. 긍정적 감정에서 공감 점수는 3점 만점에 평균 2.14점, 동정 점수는 3점 만점에 평균 2.42점을 받았다. 부정적 감정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은 3점 만점에 평균 2.53점, 2.59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표 2> 도덕적 감정 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M	(SD)	전체 M(SD)
긍정적 감정	공 감	2.14	(.41)	2.28(.38)
	동 정	2.42	(.42)	
부정적 감정	수치심	2.53	(.41)	2.56(.32)
	죄책감	2.59	(.36)	

3) 유아의 도덕적 행동

유아의 도덕적 행동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유아의 도덕적 행동 점수는 5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 4.16점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교사들은 유아들이 대체적으로 규칙을 잘 준수한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도덕적 행동 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M	(SD)	전체 M(SD)
도덕적 영역	4.19	(.64)	4.16(.62)
인습적 영역	4.14	(.65)	

2.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행동의 관계

1)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행동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행동의 상관관계

	준 거			
	심각성	규칙독립성	보편성	응분의 별
도덕적 영역	-.06	.16*	.21*	-.06
인습적 영역	-.14	.17*	.22**	-.08
전 체	-.13	.18*	.27*	-.11

* $p < .05$ ** $p < .01$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행동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판단준거 중 규칙독립성($r = .18, p < .05$), 보편성($r = .27, p < .05$)에서 유아의 행동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규칙과는 독립적으로, 맥락과 상관없이 규칙 위반행동을 나쁜 것으로 판단할수록 유아의 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보편성 준거는 도덕적 영역($r = .21, p < .05$)과 인습적 영역($r = .22, p < .01$)점수 모두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판단준거 중 심각성과 응분의 별 준거와 유아의 행동은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행동

유아의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행동의 상관관계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공감	동정	수치심	죄책감
도덕적 영역	.39***	.49***	-.16	-.06
인습적 영역	.39***	.52***	-.15	-.03
전 체	.51***		-.13	

*** $p < .001$

유아의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도덕적 행동은 긍정적 감정에서 의미 있는 높은 정적 상관($r = .51, p < .001$)을 보였다. 특히 동정은 도덕적 영역($r = .49, p < .001$)과 인습적 영역($r = .52, p < .001$) 모두에서 공감보다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아의 공감과 동정수준이 높을수록 도덕적 행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감정인 수치심과 죄책감은 모두 유아의 도덕적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감정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감정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유아의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감정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 감정은 도덕 판단에서 규칙독립성($r=.27, p<.01$)과 보편성 준거($r=.35, p<.001$)와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정적 감정은 전반적으로 심각성($r=.41, p<.001$)과 응분의 벌($r=.39, p<.001$) 준거에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먼저 긍정적 감정과 도덕적 판단과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아의 동정과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도덕적 영역과 인습적 영역의 규칙 모두를 유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습적 영역의 규칙을 규칙과 독립적으로, 즉 규칙이 없어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정적 감정과 도덕적 판단과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치심과 죄책감이 높은

유아일수록 도덕적 영역과 인습적 영역의 규칙 위반 행동을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치심이 높을수록 도덕적 영역과 인습적 영역의 규칙을 위반했을 시 더 많은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이 높을수록 인습적 영역의 규칙 위반 시 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1.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행동의 일반적 경향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5세 유아들은 심각성, 규칙독립성, 보편성, 응분의 벌의 4가지 준거를 모두 사용하여 도덕적 규칙과 인습적 규칙을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들은 인습적 규칙보다 도덕적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더 나쁘고 엄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인습적 규칙보다 도덕적 규칙을 규칙이 없어도,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도 도덕적 규칙과 인습적 규칙을 구분한다는 많은 연구들(Nucci & Turiel, 1978; Smetana, 1981, 1985; Smetana, Schlagman & Adams, 1993; Tisak, 1993)과 일치한다.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금순(1988)의 연구에서도 만 5세 유아들은 심각성, 규칙독립성, 보편성과 응분의 벌 준거에서 두 종류의 규칙을 구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신(1999)과 송미화(1997)의 연구에서도 만 5세 유아들이 심각성과 응분의 벌에서 두 규칙을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 우

<표 6>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감정의 상관관계

준거	규칙영역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공감	동정	수치심	죄책감
심각성	도덕규칙	.17*	.10	.25**	.24**
	인습규칙	.11	.02	.34***	.34***
	전 체	.12		.41***	
규칙 독립성	도덕규칙	.10	.15	.09	-.02
	인습규칙	.23*	.26**	.23**	.07
	전 체	.27**		.16	
보편성	도덕규칙	.18*	.26**	.17*	.26**
	인습규칙	.32***	.28*	.13	.12
	전 체	.35***		.23**	
응분의 벌	도덕규칙	.08	-.03	.32***	.17*
	인습규칙	.11	.03	.31***	.27**
	전 체	.05		.39***	

* $p<.05$ ** $p<.01$ *** $p<.001$

리나라 만 5세 유아들은 도덕규칙과 인습규칙을 구분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영역과 인습적 영역의 준거판단을 조사하였으나 유아들의 영역구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준거 판단에 대한 타당성을 보다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도덕적 감정의 경우 본 연구대상 만 5세 유아들은 전반적으로 도덕적 감정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술적 수치상 부정적 감정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Olthof와 그의 동료들(2000)이 본 연구에서와 같은 수치심/죄책감 도구를 사용하여 네덜란드 유아들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측정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유아들은 규칙 위반 행동에 대하여 보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사가 평가한 유아의 도덕적 행동 점수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덕적 영역과 인습적 영역에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교사는 유치원에서 유아들이 도덕적 규칙과 인습적 규칙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도덕적 행동을 측정함에 있어서 해당 학급의 교사가 평소의 유아 행동에 대한 관찰 결과를 중심으로 행동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실제 유아의 행동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 도덕적인 상황에서 유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란 쉽지 않지만,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유아의 도덕적 행동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행동의 관계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판단 준거 중 내적 준거인 규칙독립성 및 보편성 준거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칙의 심각성이나 응분의 벌과 같은 외적인 준거보다 규칙독립성이나 보편성과 같은 내적인 판단 준거에 대한 이해가 높은 유아일수록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교사는 평가하였다.

이를 도덕적 영역과 인습적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먼저 도덕적 영역에서의 유아의 행동은 도덕적 판단 준거 중 보편성 준거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도덕 규칙을 유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할수록 도덕 규칙을 잘 준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판단 수준과 도덕적 행동은 정적 상관이 있으며 도덕적 판단이 행동을 예언하는 요인이라고 본 Kohlberg의 이론(김상윤, 1993)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Blasi(1980)가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동간의 상관관계를 다룬 75편의 연구 중 57편의 연구에서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도덕규칙은 유치원이 아닌 집에서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보편성의 개념이 발달한 유아들은 부모나 교사가 적용하는 도덕적 기준의 불일치로 인하여 인지적 갈등을 겪지 않고 일관된 도덕적 당위성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들의 보편성 판단준거에 대한 이해를 높여줌으로써 도덕적 행동이 증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있어서 부모와 교사가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유치원과 가정의 일관된 도덕교육을 통해서 유아들이 도덕규칙은 타인의 권리나 복지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시

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지켜야 한다는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개념을 이해했을 때 도덕규칙을 더 잘 준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가정과 유치원의 일관된 도덕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인습적 영역에서의 유아의 행동은 도덕적 판단 준거 중 규칙독립성 및 보편성 준거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습적 규칙 또한 도덕적 규칙과 유사하게 규칙이 없더라도, 규칙의 유무와 상관없이 유치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할수록 인습 규칙을 잘 준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습규칙을 도덕규칙처럼 판단하는 도덕화 경향이 나타날수록 인습적 규칙을 잘 준수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습적 사건이 어른에 대한 존경과 관련되어 있고(웃어른께 인사하지 않는 것),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인습적 규칙(장난감을 제자리에 정리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습규칙에 포함된 이러한 도덕적 요소를 이해한 유아들이 도덕적 규칙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인습규칙의 도덕화 경향에 대하여 연구한 박영신(2001)은 유아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인습적 규칙을 도덕적 규칙처럼 반응하는 것은 규칙자체만이 아니라 해당 규칙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결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인습규칙(웃어른께 인사하기, 장난감을 제자리에 정리하기)을 규칙이 없어도 유치원뿐만 아니라 집에서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는 유아들은 어른을 존경하고 규칙의 위반으로 발생할 통합적 결과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습규칙을 더 잘 준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rane과 Tisak(1995)의 연구에서 미국아동의 경우에는 도덕적 요소를 포함

한 인습적 규칙에서 도덕적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초등학교에 가서야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보고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유아들은 미국아동보다 더 일찍 인습규칙의 도덕적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습규칙의 도덕화 경향과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어른에 대한 존경과 관계없고,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인습적 영역의 일반적 규칙에서도 도덕화 경향을 보였을 때 규칙위반행동이 감소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덕적 행동은 외적인 준거인 심각성이나 응분의 벌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규칙의 위반이 심각한 것이고 많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외적 준거를 내세워 일방적인 주입이나 훈육을 하기보다 내적인 판단 준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스스로 규칙의 의미를 알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도덕적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유아의 도덕적 행동은 긍정적인 감정과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아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이 느낀 감정이나 기분을 마치 자신이 느낀 것처럼 인식하는 공감수준이 높을수록 도덕적으로 행동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이 유아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동기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집단 따돌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공감이 피해자를 지각하고 도움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줌으로써 따돌림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이희경(2001, 2002)의 연구도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또한 동정이 도덕적 행동과 인습적 행동 모두에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동정은 돕기, 나누기 등의 친사회적 행동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Spinrad 등, 1999)고 보는 입장과 일치한다.

여러 연구들(Eisenberg, 1986; Kochanska, 1991; Thompson, 1987)에 의하면, 유아들은 사회도덕적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규칙을 따랐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규칙을 위반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따라서 규칙을 따르려는 행동이 동기화 된다고 한다. 즉,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감정과 도덕적 행동 사이에 정적 상관이 나타난 것은 규칙에 부합했을 때의 긍정적 감정을 기억하고 예측함으로써 사회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도덕적 행동과 관련하여 인지발달이론이 인지적 요소에 치우쳐 감정, 특히 도덕적 감정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고 보는 감정 윤리론자들의 이론(이인재, 200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도덕적 행동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도덕적 감정의 역할을 확인했다면, 도덕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유아의 공감과 동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좀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인 수치심과 죄책감은 도덕적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들도 도덕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도덕적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도덕적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Tangney와 Fischer(1995)의 연구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Tangney와 Fischer(1995)는 수치심과 혼재된 변인을 제거한 죄책감(shame-free guilt)은 동정이나 타인 조망 수용 등 긍정적 변인과 관련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근 죄책감을 수치심과 구분함으로써 그것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유아가 느끼는 감정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도덕

적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수치심이나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도덕적 감정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부정적인 도덕적 감정의 긍정적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적인 연구들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감정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인 도덕적 감정은 도덕 판단에서 내적 준거들, 규칙독립성과 보편성 준거와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공감과 동정수준이 높을수록 규칙의 유무나 장소에 상관없이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공감과 동정은 도덕, 인습영역 모두에서 보편성 준거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공감과 동정 수준이 높을수록 규칙을 위반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추론하여 타인의 정서 상태나 입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치원이든 가정에서든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보편성 판단준거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도덕적 영역과 인습적 영역의 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음을 상기해 볼 때, 도덕적 판단과 감정, 행동의 상호작용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부정적 감정은 전반적으로 외적 판단준거인 심각성과 응분의 벌에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높은 유아일수록 규칙 위반 행동을 더 심각하게 여기며, 규칙을 위반했을 시 더 많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owler(1994)는 자녀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사회계층의 아동들은 도덕규칙과 인습규칙의 위반에 대해 더 엄한 벌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최보가와 송미화(1997)는 부모나 교사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유아들은 도덕규칙과 인습규칙의 위반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많은 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

다고 보고했으며, Chilamkurti와 Milner(1993)는 단정적인 성인일수록 문제 사태에서 유아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며, 이는 유아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성인위주의 규칙부과가 자주 일어나는 환경조건에서 도덕규칙과 인습규칙을 모두 심각하게 인식할 것이며, 엄한 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아가 규칙을 위반했을 때 부모나 교사가 사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복종을 강요할 경우나, 사태 자체에 중점을 두지 않고 유아 내적인 변인에 중점을 두어 유아를 비난할 경우 유아들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더 많이 경험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많이 경험한 유아들은 그렇지 않은 유아들에 비해 도덕규칙과 인습규칙의 위반을 더 심각하게 인식할 것이며 더 엄한 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유아의 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판단준거보다 도덕적 감정과 좀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발달이론은 도덕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인지적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행동과의 괴리를 낳았고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행동을 소홀히 다뤘다고 비판하면서, 도덕적 삶을 위한 감정교육을 주장하는 입장을 지지한다. 또한, 합리적인 도덕적 판단력을 길러주면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느끼고 행동할 것이라는 기존의 도덕교육의 틀을 벗어나 적극적인 감정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도덕적 감정을 통해 올바른 행동에 대한 내면화를 돕는 것은 규칙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거나 훈계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도덕적 행동을 위한 동기화가 더 쉽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미숙(1999)은 도덕적 행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덕적 감정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귀납적인 훈육을 사용하여 아이들이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고통이나 해를 미치는가를 주의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모델에 오랫동안 접할 수 있도록 하며, 도움을 베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입장채택, 역할채택, 역할연기, 시뮬레이션 등 도덕적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실제 유치원에서의 감정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행동에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인지적인 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감정의 도덕적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항상 도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감이나 동정의 대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도덕성의 발달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가 함께 역동적 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입장에서 김규수, 안연경과 소성숙(2002)은 유아를 대상으로 동화를 이용해 도의, 동극, 게임 등의 통합적 도덕교육활동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행동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밖에 다양한 시도들을 통하여 판단-감정-행동의 통합적 도덕교육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동을 각각 측정하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도덕적 판단과 감정, 행동의 세 측면은 개별적으로 기능하거나 분리되지 않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관련성을 맺고 있

다. 따라서 이들의 보다 정확한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유아가 어떤 도덕적 문제 사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느끼며, 행동하는지를 밝힐 수 있는 연구방법상의 모색과 더불어 실제 생활의 관찰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만 5세 단일 연령으로 한정하였으나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행동의 관계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의 보다 많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동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를 기초자료로 하여 실제 판단-감정-행동의 통합적 관점에서 어떻게 도덕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고미숙(1999). 도덕교육에서의 정서에 관한 연구. **교육철학**, 22, 19-43.
- 김규수 · 안연경 · 소성숙(2002). 동화를 통한 통합적 도덕교육의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6(4), 45-64.
- 김보들람(1993). 도덕적 규칙 위반과 인습적 규칙 위반에 대한 아동의 개념.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상윤(1993). 유아의 도덕개념과 도덕행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논총**, 3(1), 57-73.
- 김상윤(2000). 인지발달이론과 영역구분이론에 의한 한국인의 도덕성발달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7(1), 1-25.
- 김성민(1994). 도덕적 위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아동의 정서 이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시은 · 정영숙(2000). 도덕판단에서 취학전 아동의 의도 사용과 의도성 구분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1), 49-64.
- 김정규 · 김은희(1993).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3(1), 29-47.
- 김정준(1993). 가설적 갈등상황의 토의가 유아의 도덕적 추론 발달에 미치는 영향-분배 정의 추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선(2000). 유아의 정서귀인과 도덕적 행동. **아동교육**, 9(1), 131-142.
- 김혜옥(2001). 기본생활의 단계적 지도 프로그램이 유아의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병기 · 추병완(1996). **윤리학과 도덕교육**. 서울 : 인간사랑.
- 박영신(1999).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2(2), 11-23.
- 박영신(2001). 한국아동들의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과 그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4(2), 83-104.
- 박성희(1994). **공감 · 공감적 이해**. 서울 : 원미사.
- 송미화(1997). 유아 · 성인의 관계방식이 유아의 도덕 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미양(2002).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유형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혜자(1999). 동극과 역할놀이가 유아 도덕적 추론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인숙(1996). 도덕적 위반 상황에 대한 가해자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아동의 정서적 반응.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미경(1992). 도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이해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재(2003). 도덕적인 삶을 위한 감정의 역할과 감정교육에 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 54, 167-207.
- 이혜주(1996). 친사회적 행동훈련이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사회적 책임감, 친사회적 행동동기에 미치는 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희경(2001). 공감수준과 친소관계가 따돌림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15(3),

- 281-297.
- 이희경(2002). 공감과 동조가 집단따돌림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6(4), 23-40.
- 장금순(1988). 5세 유아의 위반 개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1992). 아버지의 양육 참여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 판단능력. *유아학회지*, 13(1), 38-51.
- 조난심 · 이종태(1997). 인간교육의 개념정립을 위한 연구. *교육철학*, 18, 99-123.
- 최보가 · 송미화(1996). 유아의 도덕적 및 인습적 규칙에 대한 판단. *대한가정학회지*, 34(4), 49-62.
- 최보가 · 유연옥(2000). 사회도덕적 위반사태에 대한 청여자 입장에서의 아동의 정서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3), 61-75.
- Blasi, A.(1980). Bridging moral cognition and moral action :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2), 1-45.
- Chilamkurti, C., & Milner, J. S.(1993). Perceptions and evaluations of child transgressions and disciplinary techniques in high-and low-risk mothers and their children. *Child Development*, 64(2), 552-557.
- Crane, D. A., & Tisak, M. S.(1995). Mixed-domain events : The influence of moral and conventional components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reasoning.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6(2), 169-180.
- Eisenberg. N.(198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behavior*.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Eisenberg. N., & Lennon. R.(1980). Altruism and the assessment of empathy in the preschool years. *Child Development*, 5(2), 552-557.
- Fowler, R. C.(1994). Preschoolers'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 ru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ufts University.
- Hersh, R. H.(1992). *도덕 · 가치교육의 교수모형*. 이석호 외(역), 서울 : 교육과학사.
- Katherine, C., & Brian, H. R.(2001). Moral Education through the 3 Rs : Rights, Respect,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Moral Education*, 30(1), 29-41.
- Kochanska, G.(1991). Socialization and temperament in the development of guilt and conscience. *Child Development*, 62(6), 1379-1392.
- Lickona, Thomas(2001). What Is Good Character? And How Can We Develop It in Our Children? *Reclaiming Children and Youth*, 9(4), 239-251.
- Lewis, H. B.(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Nucci, L. P.(1981). The development of personal conception : A domain distinct from moral or social conceptions. *Child Development*, 52(1), 114-121.
- Nucci, L. P., & Turiel, E.(1978). Social interac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ncepts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2), 400-407.
- Olthof. T., Schouten. A., Kuiper. H., Stegge. H., & Jennekens-Schinkel. A.(2000). Shame and guilt in children : Differential situational antecedents and experiential correlate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8(1), 51-64.
- Smetana, J. G.(1981).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 of moral and social rules. *Child Development*, 52(4), 1333-1336.
- Smetana, J. G.(1985).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 of transgressions : The effects of varying moral and conventional domain-related distribu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18-29.
- Smetana, J. G., Schlagman. N., & Adams. P. W.(1993). Preschool children's judgments about hypothetical and actu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64(1), 202-214.
- Song, M. J., Smetana, J. G., & Kim, S. Y.(1987). Korean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3(4), 577-582.
- Spinrad, T. L., Losoya, S. H., Eisenberg, R., Fabes, R. A., Shepard, S. A., Cumberland, A., Guthrie, I. K., & Murphy, B. C.(1999). The relations of parental

- affect and encouragement to children's moral emotions and behaviour. *Journal of Moral Education*, 28(3), 323-337.
- Tangney, J. P.(1992). Recent advances in the empirical study of shame and guilt. *American Behavior Scientist*, 38(8), 1132-1145.
- Tangney, J. P., & Fisher, K. W.(1995). Self-conscious emotions and the affect revolution : framework and overview. In Tangney, J. P., & Fisher, K. W. (Eds.), *Self-conscious emotions(pp.3-22)*.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Thompson, R. A.(1987). Developmental of childrens' inference o the emotion of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3(1), 124-131.
- Tisak, M. S.(1993). Preschool children's judgments of moral and personal events involving physical harm and property damage. *Merrill-Palmer Quarterly*, 39(3), 375-390.
- Turiel, E.(1978). Social regulations and domains of social concept. In W. Damon(Ed.).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1 : Social cognition*. San-francisco : Jossey-Bass.
- Turiel, E.(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iel, E., & Weston, E.(1980). Act-rule relations : Children's concepts of social rules. *Developmental Psychology*, 16(5), 417-424.
- Wispé, L.(1991). *The psychology of sympathy*. NY : Plenum Press.

2005년 12월 31일 투고 : 2006년 3월 4일 채택